

기억과 기록: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30년

이 소 희

I. 창립: 1992년 9월 5일(토):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이 글의 목적은 1992년 9월 5일(토)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20여명의 회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창립한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KAFSEL)의 학회 활동 30년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필자로서는 지난 30년이 참으로 눈 깜짝할 만큼의 짧은 기간으로 느껴진다. 그동안 영미문학 연구분야 중에서도 페미니즘 문학비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왔던 우리들이¹⁾ “따로 또 같이”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도 “우리”가 “연대”하여 학문공동체로서 심혈을 기울여왔던 작업들을 다시 기억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

1) 여기서 “우리들”이란 지난 30년간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의 학술 활동에 참여했던 모든 회원들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미문학 연구자들 중에서도 페미니즘 문학비평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연구자들을 의미한다.

리가 진행해온 작업들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지난 2012년 9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작성했던 글과는 그 목적이 명백하게 다르다. 그 글은 2012년 당시 한국여성학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²⁾의 창립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위하여 한국여성학회가 우리 학회에 요청한 글을 당시 11대 임원진의 요청에 의해 이귀우 제10대 회장님과 필자가 함께 작성한 것이며 때마침 학술지 『영미문화페미니즘』의 창립 20주년 기념호 발간과 맞물려 수록하게 된 글이다. 추후 이 글은 2012년 9월 12일 학술 심포지엄을 거쳐서 각 학문 분야에서 여성주의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는 15개 학회의 발생과 학술 활동을 기록한 글들과 함께 2013년 10월 10일 단행본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각 학문 영역에서 이뤄온 여성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수록되어 출판되었다. 이러한 점을 비교할 때 우리 학회의 창립 배경과 다양한 학술 활동, 국제적인 학술교류, 또 사회와의 소통 등을 기록하게 될 이 글은 온전하게 우리 학회의 특색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³⁾ 따라서 이 글은 지난

2) 인문, 사회, 인간과학 분야에서 여성 연구를 수행해 온 15개 학회의 협의체로서 2012년 9월에 출범했다. 참여학회로는 대한여성건강학회, 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가족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여성신학회, 한국여성심리학회,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영미문화페미니즘학회, 한국젠더법학회가 있다.

3) 필자가 이 글을 “기억과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쓰기로 결정한 데에는 지난 4월 30일(토)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페미니즘 아카이브 1992-2022”에서 진행된 회원들의 토론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30년간 학회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연구와 교육 경험들이 학술논문의 형태로는 존재하지만 그 안에 담지 못한 경험과 역사는 기록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페미니즘 관점에서 진행된 한국내 영문학 연구자들의 역사”를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번이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특히 “한국내”라고 하는 조건은 우리 학회가 지향하고 있는 “페미니즘”이라는 주제가 한국사회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외국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우리들로서는 학생들이 어떠한 의식적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난 6월 27일 숙명여대에서 진행된 캐시 박 홍(Cathy Park Hong)의 『마이너 필링스』(Minor Feelings) 토론회 때 한 여학생이 “젠더에 의한 차별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내 상황”에 대해 질문했던 점이 기억난다. 현재 “강남역 세대”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젠더에 의한 차별에 대해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연대”를 갈망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개인적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여성주의적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것은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강남역 세대”란 용어는 2022년 6월 18일(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30년간 “영문학 분야의 페미니즘 연구사”⁴⁾인 동시에 “영문학 분야 페미니즘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 역사”에 대한 기억이며 기록이다.⁵⁾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의 창립은 우리나라에서 영문학 분야 연구가 심화 및 확장해 나아가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의 영향을 받았던 억압적인 학문연구 분위기는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거치면서 변화되었고 88년 9월 서울올림픽, 89년 1월 해외여행 자유화, 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냉전체제 종식 등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영문학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문 후속세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당시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의 변화와 연구자 수의 양적 증가는 국내 영문학 연구발표의 활성화와 다양한 발표형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1992년 4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영어영문학회는 2,000여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린 대규모 학회로 성장함에 따라 좀더 내실 있는 학술활동을 위해 연구분야 별로 전문학회를 조직하는 방안을 기획, 실행하였다. 따라서 이때부터 전문학회 차원에서 패널을 조직하여 참가하는 미국 MLA와 비슷한 형태의 학술연구 발표의 장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그 첫 번째 연찬회가 1993년 1월 은양관광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1992년 하반기에 국내 영문학자들은

여성학회 춘계 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 세션 제목 “강남역 세대 여성들이 지금 여기를 살아내는 방식”에서 인용한 것이다.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 2030 여성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생존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의 1주기 슬로건 “우리의 두려움은 용기가 되어 돌아왔다”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4) 지난 4월 30일 개최된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페미니즘 아카이브 1992-2022”에서 이수영 교수가 발표한 글 “『영미문학페미니즘』 연구동향 분석: 1995-2021”은 그동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다각도로 분석한 글이므로 이 글이 영문학 분야 페미니즘 연구사의 전반적인 흐름과 특색을 보여주는 반면 이수영 교수의 글은 그러한 개략적인 흐름 내에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들을 보여줄 것이다.
- 5) 이 글을 쓰기 위한 자료로서의 “기억”은 필자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학회 운영에 직접 참여했던 역대 회장님들과 부회장님들의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이며 그에 바탕을 두고 필자가 대표 집필하였음을 밝혀둔다. 이 글을 쓰기 위하여 수많은 분들의 기억과 의견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필자에게는 이 집필 과정이 무거운 책임과 의무로 다가왔다.

세분화된 연구분야 중심으로 전문학회들을 창립하였다. 우리 학회가 1992년 9월 5일(토)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창립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영문학 분야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위와 같은 창립 요인은 각 분과학문 내에서 여성주의 연구를 지향하는 학회를 설립하기 위한 과정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영미권에서 197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페미니즘 문학비평 연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미문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른 결과이다.⁶⁾ 이 창립 총회에 모인 20여명은 앞으로의 학술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고 제1대 임원진도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제1대 회장에는 서지문교수(고려대), 총무이사에는 이귀우교수(서울여대), 연구이사에는 고갑희교수(한신대), 재무이사에는 오정화교수(이화여대)가 선출되었다.⁷⁾

이 글의 구성은 학회 30년 역사의 주요 분기점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집단 기억을 구조화하되 각 단계에서의 변모와 쇄신이 매우 유의미하게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학문 활동에서 갖는 의미를 보여줄 것이다. 제1기(1992-2001)는 학회 정체성 및 운영 체계 확립에 대하여, 제2기(2002-2011)는 FSEL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제3기(2012-2021)는 회원 개인 역량의 국제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학술지의 변화에 대하여 기술 및 기록할 것이다.

6) 여기서 “여성주의”와 “페미니즘” 용어의 차이점은 엄격한 학문적 개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소속 15개 학회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참고한 것이다. 각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회명이 “여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학회는 “페미니즘”을, 또 젠더법학회는 “젠더”를 주요 연구분야로 내세우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여성연구학회들은 주요 연구분야를 “여성주의”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점을 참조하여 표기하였다.

7) 지난 30년간 구체적인 역대 임원진 명단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fsel.org/ver1.0/korean/intro/sub_3.htm)를 참조하기 바람.

II. 제1기: 1992년 - 2001년: 학회 정체성 및 운영 체계 확립

II-1. 정기 월례 독회 모임: 1992년 - 1997년

영문학 분야의 다른 전문학회들이 시대별, 작가별, 장르별로 조직된 점과 비교할 때 우리 학회는 영문학 분야 전반을 아우르면서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문학 비평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1992년 당시 국내 영문학 분야에서는 생소한 분야였다. 그러므로 다른 전문학회들과 달리 학문연구를 지향하는 학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창립총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학술 활동은 영문학 분야에서 페미니즘 문학비평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작품부터 함께 읽어가는 독회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었다.⁸⁾ 당시 창립 회원들 중에는 외국 유학을 통해 페미니즘 문학비평을 접해본 회원들도 있었으나 소수에 머물렀고 대부분은 국내에서 가르치면서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페미니즘 문학비평 이론을 이해하고 개별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작업을 “따로 또 같이”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또 외국 유학 중 페미니즘 문학비평 이론을 접했던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이해의 폭은 우리말로 국내 학자들과 토론을 통한 공부를 함께 진행하면서 더욱 확장되었다. 80년대 후반 이 분야 용어의 대부분이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영어로 표기된 그 핵심 개념들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⁹⁾

영문학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페미니즘 문학비평은 70년대 후반 페미니즘 관점에서 영문학사 다시쓰기 작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¹⁰⁾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

8) 당시 독회 모임은 대우재단 빌딩에서 매월 1회 개최되었다.

9) 이는 필자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페미니즘 문학비평을 86년 영국 Cambridge University 유학 중 접하게 된 필자는 87년 1월 그곳에서 진행된 토릴 모이(Toril Moi)의 특강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오히려 1992년 12월 독회 모임에서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10) 이러한 작업의 기념비적인 효시는 다음과 같은 두 비평서로부터 비롯되었다. 첫번째는 영

후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국내 영문학 연구분야에서 페미니즘 문학비평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¹¹⁾ 이러한 국내 영문학계의 연구동향은 1985년 8월 한국영어영문학회(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in Korea: ELLAK)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저명한 학자 데임 질리언 비어(Dame Gillian Beer) 교수에게도 매우 인상적인 특징으로 기억되었다.¹²⁾ 그는 “한국의 영문학 연구자들 중 여성연구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그들이 구사하는 영어 수준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문학비평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학자가 없다는 점에 또 한번 놀랐다”고 기록하였다.¹³⁾ 그러므로 이토록 척박한 학문적 환경에서 창립하게 된 우리 학회가 한국 영문학계 내에서 전문화된 학문분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가장 시급하면서도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또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냉전시대의 종식 이후 90년대 초반 전지구적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 영문학자들의 기존 입장과 위치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었다. 즉 한국의 영문학자들이 연구하는 페미니즘 문학비평의 지향점은 어느 방향을 바라봐야 하며 그 목표는 무엇인가? 영국과 미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과는 어떻게 차별화되어야 하는가? 또 전지구적인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문학 연구자는 지금까지 선배들이 수행해 왔던 연구방법과는 어떻게 다르게 연구해야 하는가? 전 세계 수퍼파워로 등장한 미국내 페미니즘

문학사를 여성작가들 중심으로 다시 쓰기 작업을 한 1978년 일레인 쇼왈터(Elaine Showalter)의 『그들만의 문학』(*A Literature of Their Own*)이고 두번째는 영문학사중 남녀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다시 읽기를 시도한 비평서로 1979년 산드라 길버트(Sandra Gilbert)와 수잔 구바(Susan Gubar)가 출판한 『다락방의 미친 여자』(*The Madwoman in the Attic*)이다.

- 11) 국내에서 외국문학에서의 페미니즘 문학비평 논의가 처음으로 소개된 때는 1988년으로 당시 무크지 형태로 발간되던 『외국문학』이 수록한 2-3편의 논문이다.
- 12) 질리언 비어 교수는 90년대 초반 영국 정부로부터 학문적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남성의 경우 “Sir”에 해당하는 “Dame” 작위를 수여 받았다.
- 13) 이 기록은 필자가 1986년 8월 영국문화원(The British Council) 펠로우로 선정되어 Cambridge University에서 수학할 때 필자의 지도교수였던 데임 질리언 비어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85년 당시 그가 영국문화원 후원으로 한국을 방문했었기 때문에 그가 작성한 영국문화원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문학비평을 그대로 수입하는 차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우리 학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가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첫 10년간 학회 활동의 주된 목표가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영미문학페미니즘” “학회”라는 3가지 카테고리가 겹쳐진 학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학술 활동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회원 개인의 학술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기 월례 독회 모임을 진행한다.

둘째,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페미니즘 문학비평 분야의 논의를 신속하게 수용하여 국내 학술담론을 향상시킨다.

셋째, 연구는 개별적으로 진행하지만 “페미니즘 학술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회원들의 친밀감과 여성주의적 연대감을 다져나간다.

그러므로 1997년 10월까지 5년 동안 진행된 “정기 월례 독회” 모임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진행된 가장 중요한 학술 활동이었으며 이후의 학회 활동은 이를 바탕으로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II-2. 학술지 『영미문학페미니즘』 발간: 1995년 6월

회원들의 학술적 관심과 열정이 집약되었던 정기 월례 독회 모임은 다양한 지식이 신속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학술 활동의 결과가 축적되고 집약되어 마침내 1995년 6월 학술지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권(한글)이 창간되었다. 이후 제2권(1996년 4월)은 영어로, 제3권(1996년 6월)과 제4권(1997년 6월)은 한글로, 또 제5권(1997년 12월)은 영어로 발간되었다. 그러므로 창간년도 이후인 1996년부터는 매년 두 권의 학술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또 거의 매권 마다 10여 편의 논문을 수록했다는 점 자체가 이 분야에 대한 영문학 연구자들의 수가 증가 추세였음을 반영했다. 특히 90년대 초반 해외유학(대부분 미국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마치고 돌아온 여성 신진연구자들은 우리 학회에서

의 학술 발표를 통하여 학문적 데뷔를 하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1995년 학술지 창간 이후 3년간 학술지 발간 및 그와 관련된 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며 3대와 4대 임원진 구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학회 활동을 확대하고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3대 임원진 임기(1996-1998)중 노승희 편집이사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MLA Bibliography 등재를 신청하여 1999년 6월에 등재 완료하였다. 이후 『영미문학페미니즘』에 게재된 논문들의 제목은 MLA Bibliography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이후 미국 대학들로부터 Inter-Library Loan System을 통해 논문 복사를 요청하는 이메일이 오면 학회는 그에 응답하였다. 이는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와 같이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학술지 발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다. 특히 4대(1998-2000) 임원진을 구성할 때 학술지 발간에 중점을 두어 편집이사 체제를 편집위원회 체제로 확대 개편하였고 1998년에 발간된 제6권부터 매년 1호(한글)와 2호(영문)를 나누어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또 6권 2호부터 학술지 표지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었다.¹⁴⁾ 학술지 발간에 심혈을 기울인 제4대 임원진 임기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98년 9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¹⁵⁾이 국내 발행 학술지들을 대상으로 “등재후보지”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가 나왔고 『영미문학페미니즘』은 이에 응모하여 1999년 9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¹⁶⁾ 이는 영문학 및 여성주의 연구

14) 지금까지 학술지 표지는 크게 4번 바뀌었다. 1차는 1권부터 6권 1호까지, 2차는 6권 2호부터 12권 2호까지, 3차는 13권 1호부터 27권 2호까지이며 그중 2011년 연 3회 발간하면서 19권 3호부터 매권 3호의 표지 디자인의 색깔이 바뀌었다. 또 연속적 제9대 회장(2007-2009)은 그 당시까지 발행된 학술지들을 영인본으로 자비 제작하여 학회에 기증하였다.

15) 당시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을 담당하던 국가기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었으며 2009년 과학분야 연구지원을 담당하던 국가기관들과 통합하면서 “한국연구재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16) 이러한 추진의 배경에는 제4대 임원진에서 총무를 맡았던 필자와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노승희교수가 유학하는 동안 각각의 대학교내 연구소에서 발간하던 학술지(*Journal of Gender Studies*(UK)와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USA))의 편집에 참가했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페미니즘분야 신생 학술지 초창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학술 연구기관으로부터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란 점을 이미 경험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각자 연구실에서 밤11시까지 서로 연락하면서 한국학술진흥재단 응모에 필요한 서류들을

분야의 다른 학술지보다 비교적 빠른 시기에 선정된 것으로 2001년 등재지로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학회 운영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왔는데 1999년 이후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술지를 중심으로 “영미문학 페미니즘” 학문 분야의 연구 능력을 집약, 확장해 나가던 4대 임원진은 학회 창립 이후 7년간 축적해온 학회의 역량을 총 집결하여 전문학회로서는 처음으로 1999년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II-3. 제1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1999년 11월 5-6일

우리 학회는 한국영어영문학회 산하의 다른 전문학회들과는 차별화된 학술 활동을 전개했는데 그것은 초기부터 국제적인 학술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국제적인 연구 활동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당시 국내 연구환경에서 영미문학 페미니즘 연구가 매우 생소하고 새로운 분야였기에 국제적인 연구 동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학자들만의 독특한 연구 관점을 형성해 낼 수 있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다. 1994년 12월 주한미국공보원(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USIS)에서 텔레프레스 컨퍼런스 시스템(Telepress Conference System)을 이용하여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주디스 센시바(Judith Sensibar) 교수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을 필두로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 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진행해왔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1999년 이후 2-3년 마다 지속적으로 개최해 온 국제학술대회이다. 1999년 11월 5-6일 이화여대에서 “The Location of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라는 주제로 영국과 미국, 인도 학자들을 초청하여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영문학 분야 국제학술대회 사상 최초로 국내 여성학자들이 힘을 모아 재정, 기획, 운영까지 온전히 진행한 첫 번째 국제학술대회였으며¹⁷⁾ 국내 학자들을 포함하여 총 4개국 11개 논문이 발표

준비할 수 있었다.

17) 당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셨던 영문학계의 대선배이신 중앙대의 최진영 교수와 서울대

되었다. 이러한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학회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립해가는 동시에 학술지 논문 게재 및 편집위원회 구성을 통한 국제화에도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¹⁸⁾ 그 결과 International Editorial Board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도 제1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 후인 2000년 2월에 발간된 제7권 2호부터이다.

II-4. 사회와의 소통: 페미니스트 캠프 및 단행본 발간

우리 학회는 단순히 상아탑 내에만 머무는 학술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사회적으로 대중에게 널리 확산하고 관련분야의 차세대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하였다. 연구 성과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양상”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썸머 캠프를 개최하였다. 두 번째 썸머 캠프는 2000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여성의 몸”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두 번 모두 이화여대 인문관에서 진행되었다. 세 번째 썸머 캠프는 2001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에코 페미니즘-그 이론과 실천”을 성신여자대학교 난향원에서 진행하였다. 썸머 캠프는 매년 수십명이 참가하는 대중 강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나 아쉽게도 이렇게 3년만 운영되었으며 2002년 창립 10주년 국제학술대회 준비로 중단된 이후 다시 부활되지 못하였다.

또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 사회와의 소통은 페미니즘 이론에 관한 단행본 출판이다. 페미니즘 문학비평 및 이론 분야를 국내에 소개하고 이런 취지를 더욱 널리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2000년 총 16개의 논문으로 구성된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민음사)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국내 다른 학문 분야의 페미니즘 연구자들에게 영미권의 페미니즘 이론을 소개하는데 매우 유용한 길잡이로 평가받았으며 그 결과 2001년 3월 “문화관광부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박희진 교수 모두 이점을 강조하셨다.

18) 이때 참가했던 크리스 위든(Chris Weedon)은 이후 우리 학술지를 British Library Catalogue에 소개해주어 우리 학술지의 국제화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International Editorial Board에서도 오랫동안 도와주었다.

III. 제2기: 2002년 - 2011년: FSEL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우리 학회 30년 역사에서 가장 왕성한 학술 활동을 수행했던 시기는 2002년 10월 창립 10주년 기념 제2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이후 10년간이다. 이 시기 동안 우리 학회는 학술지 『영미문학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영미문학 페미니즘 연구자들이 학술담론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10년 동안 총 4회에 걸친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이 시기에 “학술 담론을 발신하는 아시아”라는 욕망을 실현해낸 학술지가 등장하였으며¹⁹⁾ 2005년 6월 한국여성학회가 주최하는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Women’s World Congress: WW05)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²⁰⁾ 세계여성학대회는 전세계 여성주의 연구자들이 한 곳에 모이는 학문적 축제인 동시에 여성주의 문화 축제가 함께 열리는 장이다. 그동안 매 3년마다 전세계 대륙을 돌아가면서 개최되었으며 제8차 대회는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개최되었고 제9차 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²¹⁾ 우리 학회도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한국영미문화페미니즘학회 글로벌 네트워크”(FSEL Global Network)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학회 차원의 활동을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소수 회원들이나 임원진들의 역량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한국 영문학자, 그중에서도 페미니즘 문학비평을 전공하는 한국 영문학자들 개개인의 역량이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역량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페미니즘 학술공동체로서의 공동 목표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다. 구성원들이 학술공동체

19)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00년도부터 루트리지(Routledge)에서 발간하기 시작한 *Inter-Asia Cultural Studies*의 창간이다. 이 학술지 창간의 핵심 역할을 한 대만국립교통대 쉰 관싱(Chen Kuan-Hsing)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교수로 머물며 많은 한국학자들과 다양한 학술교류를 진행하였다.

20) 주된 개최장소는 이화여자대학교였으며 몇몇 행사들은 연세대학교 및 서강대학교에서도 진행되었다.

21) 후속 대회인 제10차 세계여성학대회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UCM(Universidad Complutense Madrid)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때 우리 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두 개의 패널로 참가하여 논문 8편을 발표하였다.

의 목표에 합의하고 수용한 후에야 연대와 협업이 가능하며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학회 차원에서의 국제화는 상상하기 힘든 미래의 가능성이다. 우리 학회가 전문학회로서 국제화를 꿈꿀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학회 운영에 참여했던 임원진들과 회원들의 열정, 연대, 헌신이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2022년 현재 국제적인 학술활동을 하는 한국 영문학자들의 수는 많이 늘어났고 그 영역도 더욱 다양해졌다. 그러나 당시 상황과 차별화 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이 아닌 전문학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한국 영문학자 개개인의 역량을 집결하여 아시아, 미국, 유럽의 학자들로부터 “한국의 페미니즘 학술 공동체”로서 주목받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학회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학회로 발전하는 과정은 한국학자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우리 학회의 국제화를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FSEL 글로벌 네트워크 친구들이 중요한 시기에 매우 결정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었다.

III-1. 4회의 국제학술대회 개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2002년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회원 개인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CFP를 공지하였다. 이 시기에는 아직 국제적인 포스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²²⁾ 필자가 보낸 FSEL CFP를 받은 아시아계 미국문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 셜리 림(Shirley Lim) 교수(UC, Santa Barbara)는 자신의 개인적 글로벌 네트워크 친구들에게 이 CFP를 전달했다.²³⁾

22) 우리 학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국제적으로 포스팅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7년 제4회 국제학술대회부터이다.

23) 셜리 림(Shirley Lim) 교수는 2000년 한국아메리카학회(American Studies Association in Korea: ASAK)에 참석하였는데 이때 그는 홍콩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일하면서 홍콩대학교의 “아시아계 미국문학”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홍콩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후 일국양제 체제하 홍콩 자치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이것 역시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셜리 림 교수는 ASAK에서 2001년 1월 4일부터 홍콩대학교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의 CFP를 공지하였고 필자와 구은숙 교수가 여기에 참석하였다. 이 학술대회의 마지막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문학” 연구, 그중에서도 “아시아계 미국문학” 연구와 교육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필자의 논문을 포함하여 학술대

그 결과 2002년 10월 24-26일 서강대학교에서 “Feminist Literary Studies: Gender, Nation, and Difference”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회 국제학술대회는 7개국 16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기조강연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데임 질리언 비어 교수의 “Empathy, Evolution, and Satire: Women Writers and Intellectual Change”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학회 역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제2회 국제학술대회가 갖는 의의는 매우 중요하고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우리 학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영문학 분야의 페미니즘 학술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학회로 도약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과 확신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국제학술대회에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참가자가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 페미니스트 영문학자 네트워크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⁴⁾ 특히 종합토론에서 제기된 종군위안부 및 한국 내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지위에 관한 이슈는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였기 때문에 더욱 주제성을 띤 토론으로 이어졌다.²⁵⁾

회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 일부는 홍콩대학교 출판부에서 2004년 6월에 발간한 단행본 *Crossing Oceans: Reconfiguring American Literary Studies in the Pacific Rim* (Noelle Branda Williams, et al.)에 수록되었다. 이러한 학술교류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그는 2002년 FSEL 국제학술대회의 CFP를 널리 공지해주었고 설리 립 교수 역시 오랫동안 FSEL International Editorial Board에서 여러모로 도와주었다.

24) 이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었던 일본 아시아계미국문학학회(Asian American Literature Association: AALA) 테리오 유에키(Teruyo Ueki) 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했지만 대신 필자를 2003년 9월 AALA 연례 학술대회에 초청하면서 종군위안부 관련 논문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러한 교류를 바탕으로 2003년 12월에 발간한 『영미문화페미니즘』 제11권 2호부터 매년 두 학회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제목을 각각의 학술지에 교차 수록하는 형태의 학술지 교환이 최근 29권 1호(2021년 4월 30일 발행)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다.

25) 이때 참가자들 중 미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온 두 학자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미국에서 온 도리스 프리에덴슨(Doris Friedenson)은 뉴저지의 네일샵에서 일하는 한인 여성들에 관한 논문을 준비해왔으며 필자가 2007년 10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아메리카학회(American Studies Association: ASA) 학술대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자신의 동료들에게 2002년 FSEL 국제학술대회의 토론이 자신에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는가를 설명했다. 또 말레이시아에서 온 노아 파리다 압둘 마나프(Nor Farida Abdul Manaf)는 시어머니와 함께 참석하여 당시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임원진들을 놀라게 하였다. 또 무슬림교도

3년 후인 2005년은 한국여성학회가 주최한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Women's World Congress: WW05)가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각 학문분야 페미니즘/여성주의 연구를 수행하던 여러 학회들이 국제학술대회를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당시 필자는 우리 학회 제7대 임원진(2003-2005)에서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을 맡는 동시에 세계여성학대회 “젠더와 문화” 분과의 프로그램 구성도 함께 맡고 있었다. 따라서 전 세계로부터 참가 신청하는 페미니즘 문학 및 여성 글쓰기 관련 논문들의 주제와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 덕분에 우리 학회의 제3회 국제학술대회는 “Feminist Literary Studies: Gender, Culture, and Creativity” 주제로 2005년 6월 20-22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1997년 『중군위안부』(Comfort Woman)을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한국계 미국 여성 작가 노라 옥자 켈러(Nora Okja Keller)가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초청으로 참여하여 “Writing the Womb, Mothering the Story”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을 했다. 또 2003년 우리 학회와 학술지 교류 협정을 맺은 일본의 아시아계미국문학학회 회장단 5명을 공식 초청하여 학술대회 논문 발표 등 학술적 교류를 돈독히 했다.²⁶⁾ 이 국제학술대회에 논문 발표자로 참여한 케냐, 터키, 필리핀, 트리니다드 토바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 영국 등 10개국 35명의 학자들은 이후 학술지 논문투고 등을 통해 학술교류가 이어짐으로써 FSEL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발간 지원 프

인 그녀는 학술대회 도중 시어머니와 함께 기도할 장소를 요청해와 우리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해주었다. 2009년 11월 필자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학술대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파리다는 시어머니가 자신이 유학을 하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국제적인 학술활동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파리다는 그로부터 5년 후 무슬림 사회에서 해외유학후 교수 및 시인으로 활동하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한 논문 “On Becoming Good Women: A Study on the ‘Fragmented Self’ in Malaysian Muslim Women’s Writing in English”를 2007년 12월에 발행된 『영미문학페미니즘』 15권 2호(113-33)에 게재하였다.

- 26) 당시 일본에서는 AALA 학회의 공식 패널 외에 게일 사토(Gayle Sato) 교수와 유코 마츠가와(Yuko Matsukawa) 교수가 일본의 차세대 연구자들로 구성된 또 다른 패널도 참가하여 일본 연구자들이 10여 명 이상 참여하였다.

로그래프는 학술지의 국제적 교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재원이었는데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발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학술지 발간 경비를 학회 운영 경비와 분리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 제7대 임원진부터이다. 그러므로 제8대 임원진부터는 문희경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발간을 위한 구체적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었다.²⁷⁾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2007년에는 “(Post)Feminisms”를 주제로 6월 8-9일 이틀간 고려대학교에서 제4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첫 걸음은 2006년 7월 학회 임원진들이 모두 참여한 1박의 워크샵이었다. 국제학술대회의 주제 결정은 발표자 섭외로 이어지고 발표자 섭외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우수한 논문 게재의 결과로 귀결될 것이므로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1박의 워크샵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임원진 모두의 열정과 역량을 즐겁게 발휘하여 개최했던 제4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자료집이 2007년 10월 SCI(Science Citation Index) 저널 선정 및 평가기관인 톰슨(Thomson)의 인문학분야 “Conference Proceedings List”에 등재된 결과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준비 과정부터 학회 임원진들의 남다른 노력과 열정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때 기조연설자로 영국 카디프대학교의 크리스 위든(Chris Weedon) 교수가 참여하여 “Changes, Breaks, Continuities: Feminist Theory and Cultural Analysis from the Second Waves to the Practice”라는 주제 강연을 했으며 일본, 인도, 스페인, 대만, 미국 등 총 6개국 19개 논문과 차세대 연구자들을 위한 발표의 장을 처음으로 마련하여 대학원생 논문 8편이 발표되기도 했다. 특히 이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열띤 토론, 즉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의견들이 표출되었고 따라서 긴장된 토론 과정은 국내외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후 한국과 대만 등지에서 후속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²⁸⁾ 그 주제는 바로 당시 아시아계

27)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II-2. 학술지 『영미문화페미니즘』의 국제화”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28) 이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대만 학자 핀치아 펑(Pin-chia Feng) 교수는 “그즈음 참석했던

미국문학 분야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트랜스내셔널 입양”이었다. 트랜스내셔널 입양인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다양한 글쓰기로 기록한 자전적 글 『피의 언어』(*The Language of Blood*)(2003)를 발표한 작가 제인 정 트렌카(Jane Jeong Trenka)가 발표자로 참석한 패널에 중국에서 딸을 각각 입양한 스페인의 입양 모인 유랄리아 피네로 길(Eulalia Pinero Gil) 교수와 아나 자모라노(Ana Zamorano) 교수가 함께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트랜스내셔널 입양을 둘러싼 입양인 당사자와 입양모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각국에서 온 발표자들이 인도와 스페인,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트랜스내셔널 입양 관련 사회적 상황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자리에서 한국학자 누구도 이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성인으로 성장한 입양인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사회적 담론이 마약 분출하기 시작했으며 이 주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필자로서도 국제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참으로 난감한 경험이었는데 그 학술대회의 주최자가 바로 우리 학회였다는 점이 더욱 곤혹스러웠다.²⁹⁾

국제학술대회 중 지적인 측면에서 가장 자극받은 국제학술대회였다”고 토로하였는데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07년 10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아메리카학회(ASA)에서 만났을 때 자신이 중국어로 대만에서 발표한 『피의 언어』에 대한 논문의 별쇄본을 내게 전해주었다.

- 29) 당시 트랜스내셔널 입양 관련 학술 담론을 이끈 엘레나 킴(Eleana Kim), 킴 박 넬슨(Kim Park Nelson) 교수는 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어간 한국 출신 입양인들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50년대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되어 70년대 가난과 미혼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과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인들의 숫자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당사자인 디엔 보쉐 리엠(Deann Borshay Liem)이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일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2000)은 당시 미국 PBS 방송을 통해 방영되면서 미국내에서 트랜스내셔널 입양 담론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학텍스트였다. 필자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4월 시카고에서 개최된 아시아계미국문학학회(AAAS)에 한국 학자들(필자, 구은숙, 오세용, 신덕희)과 함께 한국계 입양인 문학 관련 패널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는데 그 패널에는 교수 및 연구자들보다 한국에서 입양된 입양인 당사자들이 더 많이 참석하였다. 또 국내에서는 2008년 10월에 개최된 한국아메리카학회(ASAK)에 트랜스내셔널 입양 주제의 패널을 2-3개 기획하고 일간지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한국 정부에서 이들에게 최초로 공식적으로 관심을 보인 계기는 김대중 정부부터이다. 트랜스내셔널 입양과 관련된 한국내 사회적 담론에 대한

그로부터 2년 후인 2009년 6월 12-13일 “Women, Displacement, and Cultural Identity”라는 주제로 제5회 국제학술대회가 이화여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때에는 다양한 주제로 논문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발표자들을 섭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기조강연을 작가와 비평가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그룹마다 2명씩, 총 4명의 기조강연자가 초청되었다. 작가 그룹의 강연으로는 현재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 여성 시인으로 주목받으며 버펄로 뉴욕주립대(SUNY Buffalo)에서 가르치고 있는 명미 김(Myung Mi Kim)이 “Diaspora, Gender, and The Translingual Condition”이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을, 그리고 요즈음 『파친코』(*Pachinko*)로 주목받고 있는 민진 리(Min Jin Lee)가 “Reticence and Field Work: On Writing the Sexual Lives of Asian Women: or How I learned to Tell the Truth Through Fiction”이라는 주제 강연을 했다. 비평가 그룹의 강연으로는 멀티에스닉학회(The Multi-Ethnic Studies in Europe and the Americas: MESEA) 부회장인 로시오 데이비스(Rocio Davis) 교수가 “Academic Autobiography and Women of Color Feminism: Narrating a Cultural Practice”라는 제목의 강연을,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김현미 교수가 “The Emerge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derized Citizenship in South Korea”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이 학술대회는 특히 유럽과 미국 학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MESEA와 공동 주최함으로써 우리 학회를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미국과 영국, 대만과 일본 외에도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등 총 7개국 18명의 외국 학자가 참여했으며 국내 학자들을 포함하여 총 32개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그중 대학원생 논문 7편이 포함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국제학술대회의 특징을 꼽자면 기조강연자로 김현미 교수를 초청하여 국내 이주여성 실태의 현주소를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4회 국제학술대회 진행 현장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국제학술대회 현장에서 영문학을 연구하는 한국 학자가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잘

자세한 내용은 줄고. 「초국가적 시민주체: 귀환한 해외 입양인들의 탈경계적 정체성」, 『탈경계 인문학』 3.2 (2010): 199-223을 참고하기 바람.

알지 못해서 학술대회 주최자로서 침묵해야만 했던 그 상황의 난감함과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제5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김현미 교수를 기조강연자로 초청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경험들이 바탕이 되었다. 또 학술대회 발표논문들의 주제도 영어로 쓰인 텍스트 분석으로부터 점차 사회문화적 주제와 연결된 영상텍스트 분석으로 변화, 발전, 확장되어갔다. 이와 같이 우리 학회는 지속적인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외국학자들과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진행해 왔는데 이러한 교류의 핵심에는 항상 “여성과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는 주제가 있었고 우리 학회가 바로 이러한 학술 담론을 생산하고 견인하며 발신하는 주체였다. 이러한 학문 교류 활동은 그동안 발간된 학술지를 통해 꾸준히 발표되었으며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학회 차원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미문학페미니즘』의 A&HCI(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저널 선정이었다.

III-2. 학술지 『영미문학페미니즘』의 국제화

학술지 『영미문학페미니즘』은 1995년 6월 1권이 창간된 이래 지속적으로 연 2회 (6월(한글), 12월(영문)) 발간해왔고 2011년 이후 연 3회 (4월(영문), 9월(한글), 12월(영문)) 발간으로 전환해 매년 영문 2회, 한글 1회 발간을 진행해왔다. 이와 같이 영문판 발간 횟수를 늘린 이유는 해외 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 및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로의 도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이러한 영문호 발간을 통해서 해외 학자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문학 및 여성적 글쓰기 분야 학자들과 “FSEL 글로벌 네트워크”³⁰⁾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 학회는 『영미문학페미니즘』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등재후보(1999) 및 등재(2001) 학술지로 선정됨에 따라 초창기부터 게재 논문의 질을 엄격히 관리했고 이를 위해 2000년부터 해외 학자들을 초청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30) “FSEL 글로벌 네트워크”는 우리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던 필자로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의 소속기관도 모두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이다. 2012년 11월 당시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영미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학술지의 논문 심사 과정은 매우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었으며 특히 학술지 계속 평가 중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는 질적 평가에서 항상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평판은 국제적으로도 확대되어 이미 발간된 『영미문학페미니즘』에 게재된 개별논문들을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에서 기획하는 단행본에 게재 논문들이 재수록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재수록 요청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³¹⁾ 이러한 국제활동의 연장선에서 우리 학회는 2005년 이후 A&HCI 등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8대 임원진(2005-2007)부터 학술지의 A&HCI 저널 선정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2006년 7월부터 강원도 평창의 휘닉스파크에서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1박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현안들을 점검하였으며 민주적인 토론과 의견 교환 과정을 거쳐서 관련 업무 진행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문희경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의 세심하면서도 헌신적인 리더십 아래 진행되었으며 외국 학자 및 기관들과 공식적으로 주고받는 서류들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학회를 국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학회 로고도 필요하게 되어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하였다. 이때부터 국제적인 학술지 발간 형식을 따르기 위해서 새롭게 시도한 편집구성이 있는데 그것은 각 호마다 “서평”을 게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다. 그 당시에도 개인별, 학교별 업적평가를 위해 빠듯한 시간 속에서 논문을 써야 하는 회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각

31) 구체적인 예로는 『영미문학페미니즘』 14권 2호(2006년 12월 발행)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 “Cultural Citizenship as Subject Making in *Comfort Woman* and *A Gesture Life*”가 영국에서 발간되는 *Contemporary Literary Criticism*(Vol. 268, Apr. 2009)에 재수록되었으며 15권 2호(2007년 12월)에 게재된 핀치아 켈 교수의 논문 “‘We was girls together’: The Double Female Bildungsroman in Toni Morrison’s *Love*”가 The American Society for Toni Morrison Studies에서 발간하는 총서에 재수록되었다. 최근까지 지속된 논문의 재수록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IV-3.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학술지의 변화”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호마다 “서평”을 게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A&HCI 저널 선정에 위한 국제적인 학술지의 발간 형식을 따르기 위해서 매 호마다 “서평” 수록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이 시기부터 학회 차원에서 학술지에 수록되는 모든 논문들의 영문 초록에 대한 감수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학회 임원진들의 자발적인 수고와 헌신에 의존하였으나 발간 호수가 거듭함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감수를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이 제도는 지금까지 유지되어오고 있다. 이는 MLA Bibliography와 British Library Catalogue를 통해서 해외 연구자들이 『영미문학페미니즘』에 게재된 영문 제목과 초록을 읽고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문학회에서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2007년 1월 충북 단양의 한알콘도에서 개최된 편집위원회 겨울 워크샵에서 우리의 희망을 담은 “FSEL 희망통장”을 개설, 운영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내용은 임원진과 회원 개인들이 월 3만원씩 3년간 한시적으로 자동이체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는 자발적 참여 의사에 따른 것으로 “페미니즘 학술공동체”로서의 “우리”라는 연대의식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실천 방식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FSEL 희망통장”은 현실적인 동시에 “우리의 희망”을 가까운 미래에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컸다.

제9대 임원진(2007-2009)에서는 최주리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의 필자들이 논문 투고를 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 개최된 제5회 국제학술대회를 유럽과 북미의 연구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MESEA와 공동 개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의 국제화”라는 두 개의 학술 활동이 수레바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제10대 임원진 임기(2009-2011) 시작후 개최된 편집위원회에서는 A&HCI 저널 선정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FSEL 대표가 직접 미국 동부(필라델피아)에 있는 톰슨(Thomson)사를 방문하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 계획은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제10대 임원진 역시 국제학술대회와 학술지의 국제화를 동시에 추구하

였지만 2012년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학술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역량은 축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 신경숙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학술지의 국제화에 학회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세계적인 출판사 루트리지(Routledge)로부터 『영미문학페미니즘』에 관심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루트리지 출판사가 제안했던 편집과 유통 방식은 우리 학회의 학문적 정체성과 회원들의 구성, 특히 “KCI 등재 저널”에게 요구되는 논문 공개의 범위와 상충되어 학회로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2010년 1월 경기도 파주에서 개최된 편집위원회 워크숍과 이후 몇 차례 거듭된 편집회의 및 확대이사회 등에서 『영미문학페미니즘』 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루트리지 출판사와 함께 “학술지의 국제화”라는 창립 초기부터의 원대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회 회원들이 당면한 이슈, 즉 “KCI 등재지 논문 게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요청사항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학회로서는 “KCI 등재지 논문 게재”가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³²⁾ 그러나 A&HCI 등재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즈음 국내 연구 환경도 많이 변화되었다. 2000년 이후 각 대학들이 연구업적 평가에서 SCI급 저널에의 논문 게재를 장려하면서 국내 연구자들도 KCI급 학술지보다 SCI급 학술지에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선호하였으며 따라서 『영미문학페미니즘』 영문호에 투고되는 논문의 수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우리 학회가 추구해온 “학술지의 국제화”라는 기능

32) 동아시아에서 우리 학회와 비슷한 시기에 A&HCI 저널 선정을 위해 노력했던 저널이 있는데 대만국립사범대학교(NTNU: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에서 발행하는 저널 *Concentric*으로 2010년 즈음하여 A&HCI 저널에 선정되었다. 이 저널은 영문학 분야의 저널로 각 호마다 최근 담론의 주제를 정해 특집을 기획했으며 미국과 유럽의 저명한 학자를 Guest Editor로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또 대만의 연구지원기관인 NSC(National Science Council)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편집위원회와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이 분야의 대만 내 연구인력을 폭넓게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Concentric*의 A&HCI 저널로서의 선정은 연구기관인 한 대학 차원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대만 영문학계 전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하는 우리 학회와는 재정적, 행정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성의 실현은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회원 개인의 역량을 국제화하기 위한 노력은 또 다른 형태로 변화, 발전되어 갔다.

III-3. 사회와의 소통: 작가 초청 특강 및 단행본 발간

이 시기 동안 사회와의 소통 프로그램으로 아래 두 가지가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은 작가 초청 프로그램이다. 2004년 5월 흑인 여성 작가 앨리스 워커(Alice Walker)의 특강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 흑인 여성의 글쓰기 『컬러 퍼플』(*The Color Purple*)로 1983년 풀리처 상을 수상한 앨리스 워커는 당시 국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우리 학회는 그를 초청하여 “Writing the Unspeakable” 특강을 진행하였다. 또 첫 번째 단행본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2000) 이후 페미니즘 이론 분야의 변화된 내용과 양상을 요약 정리한 단행본 『페미니즘: 사이와 차이』(문학동네)를 2011년 7월 총 18개 논문으로 구성하여 발간하였으며 이 책은 2012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IV. 제3기: 2012년 - 2021년: 회원 개인 역량의 국제화

IV-1. 창립 20주년 기념 제6회 국제학술대회: 2012년 6월 8-9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립 20주년 기념 제6회 국제학술대회는 제10대 임원진 때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1대 임원진 임기에 실행되었다. 따라서 학술대회 주제가 매우 신중하게 선정되었다. 2012년 6월 8-9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Feminisms and Queer Sexualities: Intersections in Text and Context”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를 위해 우리 학회는 2011년 4월 16일 국내 학술대회의 주제를 “페미니즘과 퀴어”로 선정해 국내 학자들끼리 이 분야의 연구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USC)의 주디스 헬버스탐(Judith Halberstam)³³⁾ 기조 강연자로 초청된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33) 이후 그는 잭 헬버스탐(Jack Halberstam)으로 개명하였다.

페미니즘과 퀴어 섹슈얼리티 분야 국내외 학문적 담론의 당시 좌표를 짚어보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성(섹슈얼리티) 관련 연구를 지향하는 우리 학회의 특성상 가장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주제야말로 우리 학회가 아니면 국내외 어느 학회에서도 학문적 주제로 내걸고 연구토론을 교류하기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 학회가 독창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학문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학술대회에는 영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학, 여성학 분야 연구자와 차세대 연구자들도 대거 참여하였다.

창립 20주년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제 교류 활동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대규모의 국제학술대회 형식이 아니라 보다 친밀하고 실속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국제 교류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전에 비해 국제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 다양하고 넓어졌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한국영어영문학회 연찬회 중 우리 학회의 프로그램에 외국학자 2명을 초청하여 국내 학자들과 함께 패널 구성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초청된 학자 2명은 대만의 핀치아 썩(Pin-chia Feng) 교수와 일본의 유코 마츠가와(Yuko Matskawa) 교수로 이들은 2007년 6월에 개최된 창립 15주년 기념 제4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이후 200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International Editorial Board 위원으로 도와주었고 핀치아 썩 교수는 현재도 편집위원이다. 이들의 논문은 대만의 위안부 운동과 일본계 미국여성작가의 작품 분석에 대한 것으로 2016년 4월에 발행된 『영미문학페미니즘』 24권 1호(영문)에 수록되었으며³⁴⁾ 따라서 2017년에 시행된 학술지 계속 평가중 전문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34) 핀치아 썩 교수의 논문 제목은 “An ‘Uncomfortable’ Past: Documenting Taiwanese ‘Comfort Woman’ in *A Secret Buried for Fifty Years*”(5-31)이며 유코 마츠가와 교수의 논문 제목은 “Mixing Memory and Science: Kimiko Hahn’s *Toxic Flora* and the Idea of Home”(131-57)이다.

IV-2. FSEL 패널 구성하여 국제학술대회 참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2012년부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외 학자들과 학술 교류 활동을 펼쳤는데 그것은 바로 회원들이 직접 해외에서 개최하는 관련 분야 국제학술대회에 학회 차원에서 FSEL 패널을 구성하여 참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까지 외국학자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수동적인 방식의 국제 교류 활동에서 벗어나 국내 학자들이 주체적, 능동적으로 패널을 구성해 집단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학술토론의 장에서 한국 여성학자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 여성 작가들을 국제적인 여성문학 연구 분야에 끼워 넣기 위한 색다른 형태의 학술활동을 전개했다. 2012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만 국립대학교(NTU: National Taiwan University)에서 열린 현대여성글쓰기학회(Contemporary Women's Writing Association: CWWA)의 제4차 정기 학술대회는 주로 영국과 미국, 유럽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학회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이 아닌 동아시아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였다. 우리 학회는 이 국제학술대회에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한국 여성작가 관련 논문들을 발표함으로써 여성 문학 및 여성적 글쓰기 분야의 수많은 외국 학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바야흐로 우리 학회의 국제 학술 교류 활동이 쌍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학회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이때 현대여성글쓰기학회의 동아시아 지역 이사로서 이 학술대회의 아시아 지역 유치에서부터 프로그램 기획, 구성, 운영에 참여했다.³⁵⁾ 한국학자 19명의 학술대회 참가자가 대부분 우리 학회 회원이었으나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5명의 학자를 비롯하여 한국문학 분야의 여성문학 전공자들도 함께 참여하였고 한국 학자들은 한국 여성작가 단독 연구, 또는 한국 여성작가와 외국 여성작가와와의 비교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였다.³⁶⁾ 비록 우

35) 당시 학회의 역사가 우리 학회보다 짧았던 이 학회의 국제학술대회는 1-3회를 영국과 미국에서 개최하였으며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4회 국제학술대회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Perth)와의 유치 경쟁에서 성공한 케이스였다.

36) 여기서 발표된 한국 여성 작가들은 박완서와 고정희를 비롯하여 한강, 천운영, 강경애, 한무숙 등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였다. 특히 정혜연 교수가 발표한 젊은 작가 천운영에 대한 외국학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리 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는 아니었지만 19명이라는 한국학자가 대거 참석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한국 여성작가 및 여성문학 연구자들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고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국제학술대회에 기조강연자로 참여했던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수잔 프리드먼(Susan Friedman) 교수는 이후 우리 학술지의 International Editorial Board에서 수년간 도와주었다. 또 이를 계기로 2014년 11월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한국영어영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는 우리 학회 추천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기조연설을 한 바도 있다.

두 번째 경우는 2016년 6월 21-24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0차 MESEA Conference에 두 개의 FSEL 패널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첫 번째 패널의 주제는 “Poetic and Fictional Rememorization of Asian American History”로 이 패널에서는 정은귀, 구은숙, 핀치아 펑 교수가 발표하였다. 두 번째 패널의 주제는 “Palimpsestic Readings and Stor(y)ing Memories: Re-figuring the Ethnic Selves in Asian American and New Zealand Novels and Life Writing from North Korea”로 이귀우, 차희정 교수와 필자가 함께 발표하였다. 유럽의 학자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은 주제는 “전쟁과 젠더”였는데 그들에게는 당시 생소한 주제, 즉 탈북 남성의 회고록이나 한국전쟁 이후 제3국으로 간 북한 전쟁 포로 등에 관한 논문 발표는 지적인 호기심과 열띤 토론으로 이어져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³⁷⁾ 세 번째 경우는 2021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줌 회의로 개최된 아시아계 미국문학학회(Association for Asian American Studies: AAAS)에서 한국학자 3명이 FSEL 패널을 구성하여 논문을 발표한 경우이다. 패널 주제는 “The Politics of Disconnection”이었고 참가자는 박형지, 정은귀, 김창희 교수이다.

37) 이때의 발표에 기초한 필자의 논문은 추후 『디어 리더』: 북한 남성의 자유를 향한 역사 기록적 삶쓰기』라는 제목으로 2017년 9월에 발간된 『영미문학페미니즘』 25권 2호(57-93)에 게재되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2008년 7월 3일부터 8일까지 마드리드 UCM에서 개최된 제10차 세계여성학대회에서부터 FSEL 패널 2개를 구성하여 참가하였는데 그 중 1개 패널은 한국여성 및 한국계 미국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발표한 반면 또다른 패널은 영어권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 회원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자체에만 몰두하였고 “성과 젠더”에 초점을 두는 FSEL 패널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국제적인 학술 토론의 장에서 드러내서 각인시키는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2012년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4차 현대여성글쓰기학회(CWWA)에의 참여는 우리 학회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명확하게 자각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IV-3.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학술지의 변화

『영미문학페미니즘』은 지금까지 연 3회 발간해왔는데 2018년까지는 1호(4월 30일 발행)와 3호(12월 31일 발행)은 영어 논문으로만 발간해왔다.³⁸⁾ 그러므로 연간 총 게재논문 수는 비록 20여 편 내외이지만 게재논문의 50% 이상이 영문논문이므로 국제적인 가독성 영향의 측면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우리 학술지는 국제적인 지식 유통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제22권 2호(2014년 9월 30일 발간)부터 글로벌 온라인 유통에 필요한 DOI 번호 기재를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2015년 6월 19일(금)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영미문학페미니즘』을 2015년도 전자원문구축지원 학술지로 선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유통에 적합한 등재(후보)지를 우선 대상으로 논문 원문을 전자 표준 포맷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식으로 무료 지원하는 사업이며 XML은 다른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목적 마크업(Markup) 언

38) 2019년 4월에 발행한 27권 1호까지는 영문호를 고수해왔으나 15대 임원진 임기(2019-2021)가 시작된 이후 2019년 9월에 발행된 27권 2호부터는 한글과 영문 논문을 혼용하여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술지 변화의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한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연혁”을 참고하기 바람.

어이므로 논문 원문이 XML로 구축되면 원문의 온라인 가독성과 접근성이 향상되고 원문의 이미지나 표, 참고문헌까지 직접 검색과 링크가 가능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우리 학술지에 이미 게재하였거나 앞으로 게재하게 될 논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전 세계 연구자들로부터 주목받게 될 것이고 해외 연구자들과 더욱 활발한 지적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영어 논문들의 게재 노력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처는 십수년 전에 게재된 논문들에 대한 재수록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의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학술지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필자가 학회 운영을 맡았던 시기인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년여 동안 해외로부터의 재수록 요청이 들어온 건수만 보더라도 4개의 논문에 대해서 총 5건의 재수록 요청이 들어왔다.³⁹⁾

39) 13권 2호(2005년 12월 31일 발행) Duckhee Shin “Gender and Creativity in Mary Rowlandson’s Indian Captivity Narrative”(111-28) 논문은 2017년 1월 25일 Gale/Cengage Learning에서 출판하고 Lawrence Trudeau가 편집하는 단행본 *Mary Rowlandson*에 재수록 요청이 들어와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허락하였다; 17권 2호(2009년 12월 31일 발행) Veronica Alfano, “Remembering Christina Rossetti: Dead Woman and the Afterlife of Lyric”(9-40) 논문은 2016년 4월 19일 Gale/Cengage Learning에서 출판하고 Lawrence Trudeau가 편집하는 단행본 *Christina Rossetti*에 재수록 요청이 들어왔으며, 2016년 6월 2일에는 저자 자신의 Palgrave Macmillan에서 발행 예정인 저서 *The Lyric in Victorian Memory: Poetic Remembering and Forgetting from Tennyson to Housman*에 재수록 요청이 들어와 편집위원회에서는 두 가지의 재수록 요청을 모두 허락하였다; 17권 2호(2009년 12월 31일 발행) Chris Vanderwees의 논문 “Resisting Remasculinization: Tim O’Brien’s ‘Sweetheart of the Song Tra Bong’”(191-210)은 2016년 6월 21일 Gale/Cengage Learning에서 출판하고 Lawrence Trudeau가 편집하는 단행본 *Tim O’Brien*에 재수록 요청이 들어와 편집위원회에서는 허락하였다; 21권 1호(2013년 4월 30일 발행) Christine Grogan의 논문 “‘Naw You ain’t No Man’: Reading the Patriarchal Phallogentrism in the Trueblood Episode of Ellison’s *Invisible Man*”(39-66)은 2016년 3월 9일 저자 자신이 Farleigh Dickinson UP에서 발행 예정인 저서 *Father-Daughter Incest in Twentieth-Century American Literature: The Complex Trauma of the Wound and the Voiceless*에 재수록 요청이 들어와 편집위원회에서는 허락하였다.

2010년 이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록 및 평가 시스템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10년 10월 19일 국회 국정 감사시 학술지 평가 부실 운영이 지적된 이후 당시 학술지 지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발전이 미흡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그에 따라 연구재단은 2011년 12월 7일 “학술지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2년 6월 그에 따른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때 발표된 내용 중 학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보급”으로 “국내 학술단체의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 논문 투고 및 심사 과정을 투명화하여 논문 게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⁴⁰⁾ 연구재단은 2008년 7월에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구축을 완료했고 시범 보급 사업을 거쳐 2012년 5월 69개 학회에 JAMS를 보급하였다.⁴¹⁾ 당시 우리 학회는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으나 학회 운영이나 학술지 발간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JAMS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필자가 13대 임원진 임기(2015-2017)를 시작하였을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미션이 바로 이것이었다. 따라서 2016년 3월 연구재단 JAMS 사업을 신청하여 그해 5월 선정되었고 이 시스템을 이용한 학술지 발간을 개시한 시기는 2016년 12월에 발간된 24권 3호부터이다.

13대 임원진에서는 JAMS 사업 참여와는 별개로 2015년 10월부터 민은경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의 제안과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학술지 자체의 전문성, 정체성, 특수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안으로 2016년 12월 31일 발행 예정인 24권 3호에 특집 “Engendering Form: Gender and Genre in English Literary History”를 기획하였으며 처음부터 U Penn CFP 난에 공지함으로써⁴²⁾ 외국 투고자들로부터 몇 개의 흥미로운 주제의 제안서를 받았다.

40) 2012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관실에서 발표한 「‘학술지 지원 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안)」 p.9 참조

41) 위 자료 p.17 참조

42) 해당사이트는 <https://call-for-paperssas.upenn.edu/>이며 2016년 3월 한달간 공지하였다.

그러나 논문을 진행하고 투고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사정 등으로 중단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외국 투고자들 중에서는 1명밖에 게재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기획특집호의 진행 과정은 거의 1년여가 소요된 것으로 여느 국제 학술지와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미리 공지한 기획특집 주제 아래 총 6편(한국 필자 5명, 외국 필자 1명)의 귀중한 논문들이 편집부의 서문 “Engendering Form: An Introduction”과 함께 게재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학술지 특집호 기획과 발간 진행 과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의 덕택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학술적 담론을 발신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이와 같이 우리 학술지를 국제학술지로 향상시키려는 다양한 노력과 그에 따른 노하우는 미래를 위하여 대단히 값진 경험으로 축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학회 차원에서 도전하고 실행하는 국제 학술지를 향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들, 즉 연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지식 플랫폼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지식 교류 역할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창조적인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술지 발간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창간 초기부터 영문호와 한글호를 분리하여 발간해 왔던 우리 학회 학술지 『영미문화페미니즘』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19년 5월 25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15대 임원진 임기(2019-2021) 시작 후인 2019년 9월에 발간되는 27권 2호부터 영문과 한글을 혼용하여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다음 호인 27권 3호부터 종이 인쇄 형태의 학술지 발간을 종료하고 PDF 파일로만 제작하여 배포한 것이다. 이로써 학회는 경비 절감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더욱 신속하게 넓고 두터운 독자층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V. 제4기: 2022년 이후: 연구영역의 특수성 심화 및 확대

2022년은 우리 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 학회 30년의 역사는 영문학 분야의 페미니즘, 성(섹슈얼리티)과 젠더 주제의 연구사이며 영문학 분야 페미니즘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 역사인 동시에 새로운 실험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렇다면 2022년 이후 우리 학회의 새로운 도전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최근 인문학 분야의 연구 경향이 분과학문의 벽을 넘어 융합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학회의 특화된 연구 주제, 즉 페미니즘, 젠더, 성(섹슈얼리티)을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연구영역의 심화 및 확대가 요구된다. 창립 초기 학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고군분투했던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창립 3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목표를 재해석,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 학회는 이제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라는 큰 우산에서 벗어나 “연구주제 중심의 전문학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즉 지금까지 해온 영문학 작품만을 연구 대상으로 했던 점에서 벗어나 우리 학회의 연구주제인 “페미니즘, 젠더, 성(섹슈얼리티)”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과감하고 진취적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학회는 이미 2016년 4월 16일 개최된 총회에서 정회원의 범위를 “석사 학위 소지 이상의 영미문학/문화, 성/젠더 및 인접 분야 전공자”로 확대하였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 연구영역을 넓힐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필자는 우리 학회의 제1기 학회 활동의 역사가 그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학회 운영을 맡은 임원진들과 회원들의 연구영역 확대에 대한 합의가 바탕이 되고 운영진들이 이를 실천해 낼 수 있는 열정과 역량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학회 30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연구주제 중심의 학술 활동 영역은 무한하다.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 학회가 회원 개인 역량의 국제화를 위하여 초점을 맞추었던 방식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여성문학 및 여성적 글쓰기에 초점을 맞춘 기존 방식으로는 2012년 7월 현대여성글쓰기학회(CWWA)에서 발표했던 연구주제, 즉 한국 여성작가와 외국 여성작가와

의 비교 연구 같은 것들도 일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연구자 차원에서 연구영역 확대가 선행조건임을 기억하되 우리 학회가 내세운 중심 주제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 학회는 국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새로운 학술 담론을 생산, 견인, 확산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트랜스내셔널 입양 담론이나 탈북여성들의 인권 담론과 같은 이슈들은 국제적으로 다국적, 다문화 경계선에 걸쳐있는 페미니즘 이슈이기 때문에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2014년 9월에 발간된 학술지 22권 2호에 게재된 기획 좌담 “여성의 몸과 성노동”(329-72)을 들 수 있다. 이 기획 좌담은 2014년 5월 3일,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9차 국내학술대회 “여성의 몸과 성: 다문화주의적 언어”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녹음하여 기록으로 풀어낸 것이다. 학술지의 기획과 편집 과정을 과감하면서도 유연하게 이용하여 성노동자를 말하는 주제로 내세운 이 기획 좌담은 우리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학문적, 사회적 담론으로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글이며 우리 학회 연구 주제의 특수성을 심화 및 확장하여 진취적으로 실행한 한 예이다.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우리 학회가 한국여성학회 및 한국여성문학학회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며⁴³⁾ 우리 학회만이 독창적이며 유니크하게 학술 연구 담론을 생산 및 발전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30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이 시점에 우리 학회 학술활동의 방향과 연구영역의 확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며 토론할 필요가 있다.

43) 한국여성학회는 1984년 창립 이후 우리 사회의 여성 관련 문제를 주로 연구하며 사회학적/여성학적 연구방법론이 우세하다. 한국여성문학학회는 1998년 창립 이후 한국문학 분야의 여성문학을 연구해 왔으나 최근에는 인문학 분야 및 동아시아 지역의 여성주의 연구로 연구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두 학회와 비교할 때 우리 학회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페미니즘, 젠더, 성(섹슈얼리티) 연구주제를 조망, 천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외적으로 걸쳐 있는 다양한 연구주제를 이 땅에 발을 딛고 연구하는 연구자로서의 입장(position)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독창적이고 유니크한 학술 담론을 생산, 견인, 확산할 수 있다.

인 용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관실. 「'학술지 지원 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안)». 2012년 6월 발표문.
- 기획 죄담. 「여성의 몸과 성노동」. 『영미문학페미니즘』 22.2 (2014): 329-72.
- 이귀우·이소희. 「영미문학 분야에서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각 학문 영역에서 이뤄온 여성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13, 99-119.
- 이소희. 「초국가적 시민주체: 귀환한 해외 입양인들의 탈경계적 정체성」. 『탈경계 인문학』 3.2 (2010): 199-223.
- . 「『디어 리더』: 북한 남성의 자유를 향한 역사기록적 삶쓰기」. 『영미문학페미니즘』 25.2 (2017): 57-90.
- 이희원, 이명호, 윤조원 외. 『페미니즘: 사이와 차이』. 서울: 문학동네, 2011.
-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각 학문 영역에서 이뤄온 여성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13.
-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서울: 민음사, 2000.
- Feng, Pin-chia. "An 'Uncomfortable' Past: Documenting Taiwanese 'Comfort Woman' in *A Secret Buried for Fifty Years*."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24.1 (2016): 5-31.
- Matskawa, Yuko. "Mixing Memory and Science: Kimiko Hahn's *Toxic Flora* and the Idea of Home."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24.1 (2016): 131-57.
- Manaf, Nor Farida Abdul. "On Becoming Good Women: A Study on the 'Fragmented Self' in Malaysian Muslim Women's Writing in English."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2 (2007): 113-33.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FSEL) 연혁]

1992~ 1996	1992.09.	창립 총회 및 제 1대 임원진 선출(9월 5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제1대 임원진 회장: 서지문(고려대) 총무: 이귀우(서울여대) 연구: 고갑희(한신대) 재무: 오정화(이화여대)
	1992.10.	정기월례학술모임
	1992.12.	정기월례학술모임
	1993.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1월 14-16일, 온양관광호텔)
	1993.02~12.	정기월례학술모임
	1994.02.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1994.03~11.	정기월례학술모임
	1994.09.	정기총회 및 제2대 임원진 선출 특별강연: 성육의 내용과 언어 - 정대현 (이화여대, 철학과)
	1994.12.	USIS Telepress Conference on Edith Wharton with Judith Sensibar (Arizona State University, USA)
	1995.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1월 25-27일, 온양관광호텔)
	1995.02~12.	정기월례학술모임
	1995.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권 창간호 발간
	1996.02~12.	정기월례학술모임
	1996.04.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2 발간
	1996.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3권 발간
1997~ 1999	1997.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1월 22-24일, 부산 해운대 하얏트 호텔)
	1997.03~10.	정기월례학술모임
	1997.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4권 발간
	1997.11.	제1차 국내학술대회 “19세기 이전 영문학의 페미니즘적 수용” (11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0호)
	1997.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5 발간

	1998.04.	제2차 국내학술대회 “페미니즘의 이론과 그 적용” (4월 18일, 이화여대 인문관 109호)
	1998.05.	Toril Moi (Duke University) 특강
	1998.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6권 1호 발간
	1998.06.	정기 독회모임 시작
	1998.11.	제3차 국내학술대회 “페미니즘의 다양한 목소리” (11월 14일, 이화여대 인문관 110호)
	1998.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6, No.2 발간
	1999.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1월 28-30일, 경주교육문화회관)
	1999.04.	제4차 국내학술대회 “여성,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4월 17일, 이화여대 인문관 111호)
	1999.06.	MLA Bibliography List에 등재
	1999.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7권 1호 발간
	1999.07.	'99 페미니스트 썸머캠프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양상” (7월 1-3일, 이화여대 인문관 110호)
	1999.09.	『영미문학페미니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1999.11.	제1회 국제학술대회 “The Location of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5-6 November 1999,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00~ 2001	2000.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1월 26-29일, 화순금호리조트)
	2000.02.	한국여성철학회와 공동 정기독회 모임
	2000.0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7, No.2 발간 International Editorial Board 구성
	2000.03.	『페미니즘 - 어제와 오늘』 발간 (2001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2000.04.	제5차 국내학술대회 “페미니즘 문학의 다양성” (4월 22일, 국민대학교 2호관 시청각실)
	2000.06.	2000 페미니스트 썸머캠프 “여성의 몸”

		(6월 29일-7월 1일,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1호)
2000.08.		『영미문학페미니즘』 제8권 1호 발간
2000.11.		제6차 국내학술대회 “여성의 몸” (11월 4일,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406호)
2001.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1월 31일-2월 3일, 경주교육문화회관)
2001.0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8, No.2 발간
2001.05.		제7차 국내학술대회 “기독교, 여성, 문학” (5월 12일,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406호)
2001.06.		2001 페미니스트 썸머캠프 “예코 페미니즘-그 이론과 실천” (6월 28-29일, 난향원, 성신여자대학교)
2001.08.		『영미문학페미니즘』 제9권 1호 발간
2001.09.		『영미문학페미니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2001.11.		제8차 국내학술대회 “기독교, 여성, 문학” (11월 3일,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502호)
2002~ 2005	2002.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1월 30일-2월 1일, 온양관광호텔)
	2002.0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9, No.2 발간
	2002.04.	제9차 국내학술대회 “여성과 문화” (4월 13일,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502호)
	2002.08.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0권 1호 발간
	2002.10.	창립 10주년 기념 제2회 국제학술대회 “Gender, Nation, and Difference” (24-26 October 2002, Matthew Hall,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2002.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10, No.2 발간
	2003.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1월 23-25일, 온양관광호텔)
	2003.04.	제10차 국내학술대회 “젠더와 성의 정치학 읽기” (4월 26일,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402호)

	2003.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1권 1호 발간
	2003.10.	제11차 국내학술대회 “여성/신화” (10월 18일, 홍익대학교 인문관 C동 526호)
	2003.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i> , Vol.11, No.2 발간 일본 AALA (The Asian American Literature Association)와 Journal Exchange (AALA Journal, No.7, 2001부터 시작)
	2004.05.	Alice Walker 초청 특별 강연 “Writing the Unspeakable” (5월 29일, 홍익대학교 인문관 C동 526호)
	2004.06.	창립 50주년 기념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국제학술대회 (6월 15-18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2004.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2권 1호 발간
	2004.10.	제12차 국내학술대회 “여성의 몸: 담론과 내러티브” (10월 16일, 홍익대학교 인문관 C동 526호)
	2004.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i> , Vol.12, No.2 발간
	2005.06.	제3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Women’s World Congress) 논문 35편 발표 “Gender, Culture, and Creativity” (20-22 June 2005, Posco Building,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05.06.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6월 28-30일, 온양관광호텔)
	2005.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3권 1호 발간
	2005.10.	제13차 국내학술대회 “젠더, 몸, 디아스포라” (10월 15일, 아주대학교 율곡관 영상회의실)
	2005.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i> , Vol.13, No.2 발간
2006~	2006.06.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6월 22-24일, 동국대학교)
2008	2006.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4권 1호 발간
	2006.10.	제14차 국내학술대회 “젠더와 18세기 영문학” (10월 14일, 아주대학교 율곡관 영상회의실)
	2006.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i> , Vol.14, No.2 발간

	2007.06.	창립 15주년 기념 제4회 국제학술대회 "(Post)Feminisms" (8-9 June 2007, The International Studies Hall,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2007.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5권 1호 발간
	2007.10.	"(Post)Feminisms" FSEL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가 Thomson 인문학분야 Conference Proceedings List 등재
	2007.1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11월 15-17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2007.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15, No.2 발간
	2008.04.	제15차 국내학술대회 "Feminist Pedagogies: 페미니즘과 인문학 교육" (4월 19일, 경희대학교 청운관 620호)
	2008.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6권 1호 발간
	2008.07.	제10차 세계여성학대회(Women's World Congress) "Equality is not a Utopia" (3-8 July, 2008, UCM (Universidad Complutense Madrid), Madrid, Spain) 논문 8편 발표
	2008.1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11월 20-22일, 온양관광호텔)
	2008.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16, No.2 발간
2009~ 2011	2009.06.	제5회 국제학술대회 "Women, Displacement, and Cultural Identity" (12-13 June 2009, ECC Room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09.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7권 1호 발간
	2009.1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11월 19-21일, 경주교육문화회관)
	2009.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17, No.2 발간
	2010.04.	제16차 국내학술대회 "포스트페미니즘, 대중문화, 신보수주의" (4월 17일, 연세대학교 연희관 이만섭 홀)
	2010.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8권 1호 발간
	2010.12.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12월 2-4일, 대전컨벤션센터)

	2010.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18, No.2 발간
	2011.04.	제17차 국내학술대회 “페미니즘과 퀴어” (4월 16일, 연세대학교 삼성학술정보원 장기원 국제회의실 (6층))
	2011.04.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19, No.1 발간
	2011.07.	『페미니즘 - 사이와 차이』 발간 (2012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2011.10.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9권 2호 발간
	2011.1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11월 17-19일, 온양관광호텔)
	2011.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19, No.3 발간
2012~ 2014	2012.04.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20, No.1 발간
	2012.06.	창립 20주년 기념 제6회 국제학술대회 “Feminisms and Queer Sexualities: Intersections in Text and Context” (8-9 June 2012, New Millennium Hal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12.07.	제4차 CWWA (The Contemporary Women’s Writing Association) Conference 학회 차원에서 한국학자 19명 참가 “(Wo)Man and the Body” (11-13 July 2012,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pei, ROC)
	2012.09.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0권 2호 발간
	2012.12.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12월 11-14일, 부산 BEXCO 컨벤션홀)
	2012.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20, No.3 발간
	2013.04.	제18차 국내학술대회 “페미니즘의 지평 확대” (4월 2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여학원)
	2013.04.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21, No.1 발간
	2013.09.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0권 2호 발간

	2013.1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11월 7-9일,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2013.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21, No.3 발간
	2014.03.	여성문학연구 심포지움 “여성문학의 정전화, 어떻게 볼 것인가?: 1950, 60년대 한국, 미국, 일본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3월 29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대 211호)
	2014.04.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22, No.1 발간
	2014.05.	제19차 국내학술대회 “여성의 몸과 성: 다문화주의적 언어” (5월 3일,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회의실)
	2014.09.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2권 2호 발간 기획 좌담: 여성의 몸과 성노동
	2014.11.	창립 60주년 기념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11월 20-22일,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
	2014.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22, No.3 발간
2015~ 2017	2015.04.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23, No.1 발간
	2015.05.	제20차 국내학술대회 및 인문+예술+미디어 지식융합포럼 “바다를 떠난 언어” (5월 2일, 연세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721호)
	2015.09.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3권 2호 발간
	2015.12.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12월 10-12일, 부산 BEXCO 컨벤션홀)
	2015.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23, No.3 발간
	2016.04.	제21차 국내학술대회 “여성 서사, 여성적 글쓰기와 젠더 정치학” (4월 16일, 고려대학교 국제관 321호)
	2016.04.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24, No.1 발간
	2016.05.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 선정
	2016.06.	제10차 MESEA (The Multi-Ethnic Studies in Europe and

		Americas) Conference 논문 6편 발표 (6월 21-24일, Univ. of Warsaw, Poland)
	2016.09.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4권 2호 발간
	2016.12.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12월 13-15일, 대전컨벤션센터)
	2016.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24, No.3 발간 <Special Theme> Engendering Form: Gender and Genre in English Literary History
	2017.04.	창립 25주년 기념 제22차 국내학술대회 “젠더와 서사의 정치학” (학문후속세대 포함) (4월 22일,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회관)
	2017.04.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25, No.1 발간
	2017.09.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5권 2호 발간
	2017.12.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12월 13-1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7.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25, No.3 발간
2018~ 2020	2018.04.	제23차 국내학술대회 “Kinships and Feminisms” (4월 21일, 연세대학교 연회관 4층 이만섭 홀)
	2018.04.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26, No.1 발간
	2018.09.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6권 2호 발간
	2018.12.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12월 13-15일,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2018.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26, No.3 발간
	2019.04.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in English), Vol.27, No.1 발간
	2019.05.	제24차 국내학술대회 “젠더와 영문학 교육” (5월 25일, 연세대학교 외솔관 526호)
	2019.09.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7권 2호 발간 (한글/영문 혼용 발간 개시)

	2019.12.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12월 16-18일, 대전컨벤션센터)
	2019.12.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7권 3호 발간 (PDF 파일로 배부 시작)
	2020.04.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8권 1호 발간
	2020.09.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8권 2호 발간
	2020.12.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12월 17-19일, ZOOM 회의)
	2020.12.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8권 3호 발간
2021~ 2022	2021.04.	AAAS (The Association for Asian American Studies) Conference 참가 논문 3편 발표
	2021.04.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9권 1호 발간
	2021.05.	제7회 국제학술대회 Virtual International Conference "Feminisms Now" (28-29 May 2021)
	2021.09.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9권 2호 발간
	2021.12.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12월 16-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ZOOM 회의)
	2021.12.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9권 3호 발간
	2022.04.	창립 30주년 기념 제25차 국내학술대회 "페미니즘 아카이브 1992-2022" (4월 30일, ZOOM 회의)
	2022.04.	『영미문학페미니즘』 제30권 1호 발간
	2022.09.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 『영미문학페미니즘』 제30권 2호 발간

**Remembering and Recording: Thirty Year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KAFSEL)**

Abstract

So-Hee Lee

This paper explores the 30-year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KAFSEL), focusing both on core research topics—feminism, gender, and sexuality—and on the intellectual performance of feminist scholars in English Literature. Established on September 5, 1992, KAFSEL held monthly workshops from 1992 to 1997, the highlight of the association’s intellectual activity.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FSEL)*,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was first published in June 1995. “The Location of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was held on November 5-6, 1999, and in 2000, *FSEL* assembled an international editorial board. *FSEL* was listed in the MLA bibliography beginning in 1999 and in the British Library Catalogue beginning in 2000. In December 2003, a journal exchange between *FSEL* and AALA (The Asian American Literature Association) in Japan was launched. KAFSEL has tried to broaden and strengthen the *FSEL* Global Network by leading a discussion of feminism, gender, and sexuality in Asia and around the world, with the ultimate goal of publishing an international journal. In addition to the dissemination of feminist intellectual discourse, the history of KAFSEL should be remembered as the record of a passionate, collaborative, and devoted group of Korean feminist scholars amidst

the larger intellectual feminist community in Asia. As we face the transformative wave of feminist studies in Korea, KAFSEL should take on new challenges in addressing questions of membership and the thematic agendas that will define this unique research field, both in the present and future.

Keywords: feminism intellectual community, feminist collaboration, feminist studies in Korea, Asian feminist network, KAFSEL (The Korean Association for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이소희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Received: 2022. 8. 24.

Reviewed: 2022. 9. 5.

Accepted: 2022. 9. 14.